



목표는 언제나



호국보훈의 달인 6월,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삶은
오래전 이 땅의 평화를 지키고자 했던
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랐던 내일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국가유공자에겐 자긍심을
국민에겐 애국심을 심어주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의 의미를 잊지 않고
다함께 마음에 되새겨봅시다.



CONTENTS

Vol.77 2023년 6월호

발행일

2023년 6월 1일

발행인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발행처

경상남도교육청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Tel. 055-278-1784

편집인

홍보담당관 이종섭

기획총괄

홍보담당사무관 전영부·주무관 이유민

기획·취재·편집·인쇄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주)큰그림

경남교육, 미래를 만나다

04 요즘 아이, 별별 꿈
진주여중 축구팀

08 경남교육가족을 만나다
함안교육지원청 위(Wee)센터
이동소 전문상담교사

12 특집 기획
이달의 경남교육 주요 정책
경상남도교육청
코딩교육인증제

16 학교 변신은 무죄
양산영천초등학교

20 열정을 만나는 시간
국가유공자 김정웅 어르신

경남교육, 재미를 만나다

24 방구석 전시관
김승현 작가
라탄·자개공예 전시

26 경남교육캘린더

28 힐링필링 경남교육명소
산들바람 불어오는 곳으로,
양산 법기수원지와 통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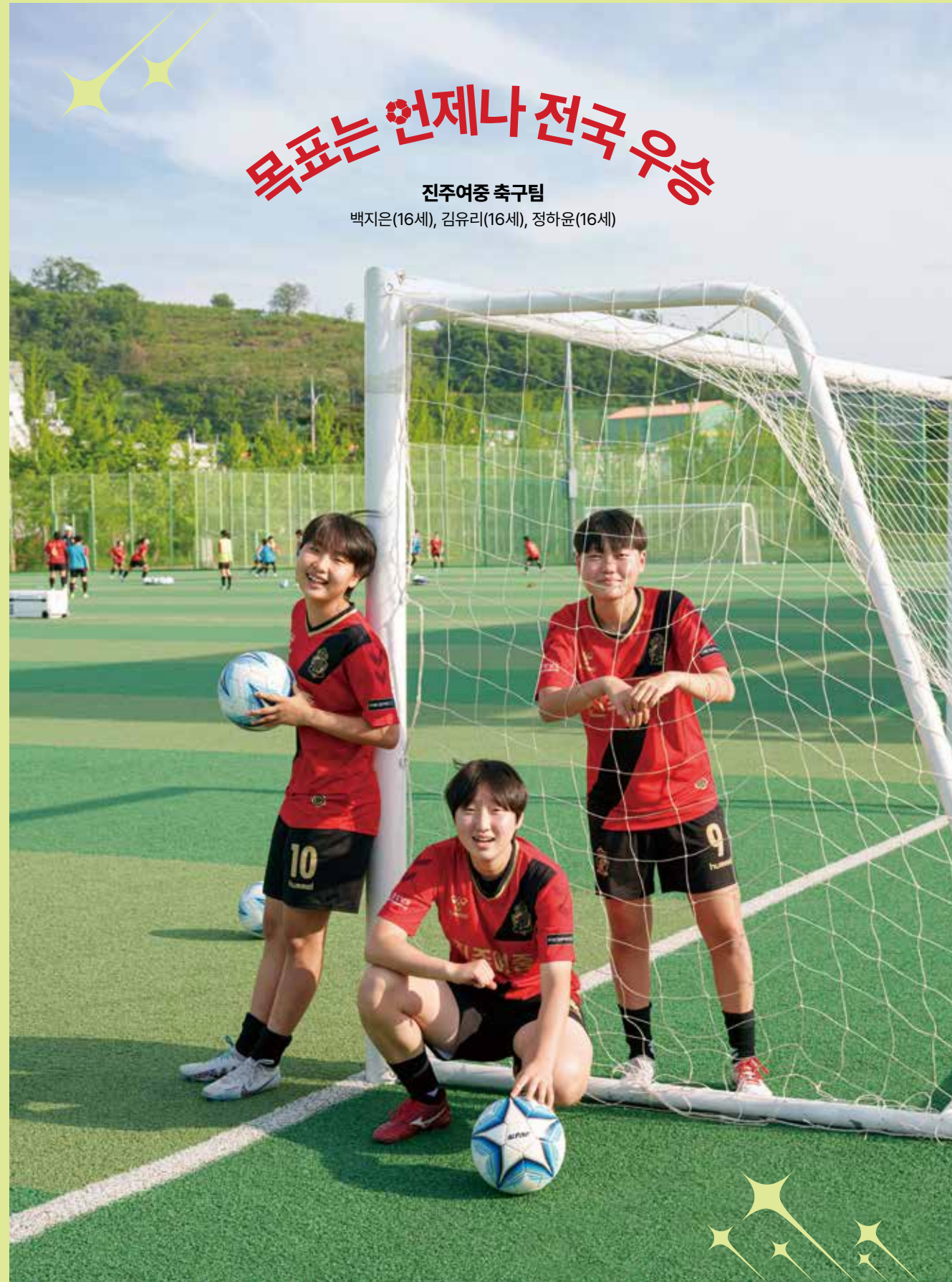
32 즐겁지 아니한家
의령 남산초 탁구 가족

36 토박이말 나들이
38 학교폭력 예방 웹툰

경남교육, 정보를 만나다

40 진로진학 나침판
42 숫자로 보는 경남교육
44 경남교육뉴스
46 의정소식
48 도정소식
50 독자기고
51 독자퀴즈





01 두 팀으로 나누어 연습 경기를 하고 있다
02 훈련 전 기합을 외치는 모습

진주시 문산읍 스포츠파크인조구장.

이곳은 매일 오후 축구하는 여학생들의 발소리로 가득 찬다. 5월 초, 인터뷰를 위해 찾아간 날에도 '진주여중' 이름이 새겨진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한창 훈련을 하고 있었다.

얼마 후 두 팀으로 나뉘어 연습 경기가 시작되고 공을 쫓아 빠르게 뛰어다니는 소리와 선수들이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리, 지은, 소미, 세은, 하윤...

이제는 '축구하는 여자들'이 생소하지 않지만 운동장을 씩씩하게 채우는 여학생들의 이름에 새삼스레 가슴이 뒹군다. 장점은 팀워크, 목표는 언제나 전국 우승!을 외치는 진주여중 축구팀을 만나보았다.

여자 축구는 역시 진주여중 축구팀

진주여중 축구팀은 2013년 창단 이후 최근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25명의 선수가 뛰고 있는 이 팀은 2021년, 2022년 추계한국여자축구연맹전 중등부 2년 연속 우승을 비롯해 2023년 춘계한국여자축구연맹전에서는 중등부 준우승을 차지했다. 팀 전체의 기량이 뛰어날 뿐 아니라 유소년 축구 최대 상인 차범근 축구상을 수상한 선수 세 명(3학년 백지은, 2학년 최세은, 1학년 이소미)이 소속된 팀이다. 선수 출신이자 20년 지도자 경력을 가진 이상윤 감독과 여자축구 선수 출신 홍한선 코치도 팀을 탄탄하게 보완해주는 힘이다.

이상윤 감독 “저희 팀은 한마디로 ‘전국에서 가장 잘하려고 하는 팀’입니다. (웃음) 기본적으로 능력치가 다들 뛰어나서 득점력도 좋지만, 최근 여섯 경기에서 실점이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수비력도 좋은 팀입니다. 그리고 선수 실력 편차가 크지 않아 어느 한 선수가 부상으로 공백이 생기더라도 다른 선수들이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상윤 감독은 학교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선수들이 ‘진주여중’이라는 자부심으로 뿜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윤 감독 “아직 국내에 여자 축구팀이 많지 않은데 진주 남강초등학교에 우수한 여자 축구팀이 있어요. 그 선수들





03



04

- 03 이상윤 감독
- 04 김유리, 백지은, 정하운 학생
- 05 진주여중 축구팀 단체 사진

이 타지로 떠나지 않고 경남에서 선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진주여중에서 노력을 해준 덕분에 지금의 팀이 될 수 있었요. 최근에는 감사하게도 교장 선생님께서 사위실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마련해주셨어요. 바람이 있다면 인조 잔디 구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훈련 장소는 학교에서 차로 20분 거리라 이동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고, 야간 훈련을 할 때도 어렵거든요.”

올해 진주여중 축구팀은 첫 대회였던 춘계한국여자축구연맹전에서는 아쉬운 준우승을 했지만, 다가오는 전국소년체전과 전국 단위 대회에서 3관왕을 하는 것이 목표다. 그가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다.

이상윤 감독 “각자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긍정적으로 잘 이겨내고 좋은 선수로 잘 성장해주면 좋겠습니다.”

경기장에선 같은 공을 보며 뛰는 든든한 동료이자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라는 같은 꿈을 꾸며 성장하는 세 명의 친구들. 축구를 하며 가장 행복할 때를 묻자 망설임 없이 팀의 우승이라 말하는 백지은(주장, 왼쪽 윙·센터 백), 김유리(부주장, 센터 포워드·공격형 미드필더), 정하운(센터 백) 선수에게 군대 축구 보다 더 재미있는 축구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축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김유리 “취미로 축구를 하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러시아 월드컵을 보고 축구선수라는 꿈을 갖게 됐어요. 당시 우리나라가 스웨덴, 멕시코에 연달아 지면서 당연히 탈락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독일전에서 2:0으로 이기는 걸 보면서 ‘축구는 다 같이 하면 안 되는 게 없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너무 멋져 보였어요.”

백지은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방과 후에 축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담당 선생님께서 남강초등학교에 여자 축구부가 있으니 가보라고 권유를 해주셔서 그때부터 선수로 뛰게 됐어요. 지금도 축구가 너무 좋지만, 그때는 관심사가 온통 축구뿐이었어요.”

정하운 “지은이와 비슷해요. 축구하는 게 재밌어서 남자애들 이랑 자주 하곤 했는데, 선생님께서 남강초등학교 여자 축구부를 알려주셨어요. 처음엔 부모님께서 힘들지 않겠냐고 말리셨는데 지금은 응원해주세요.”

Q. 축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백지은 “작년 춘계한국여자축구연맹전에서 우승했을 때요. 저희가 8강, 4강을 다 승부차기로 올라간 데다 결승전도 연장전까지 가서 우승을 했거든요. 당시 0:1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동점골을 넣기도 했고요. 그때의 쾌감이란!”

정하운 “이번 연도 첫 대회였던 춘계한국여자축구연맹전이요. 춘계 대회 때와는 다르게 결승까지 쉽게 올라갔는데 오히려 결승에서 아쉽게 졌거든요. 지고 나서 슬펐지만 다음 대회에서 무조건 우승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됐어요.”



05

Q. 진주여중 축구부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김유리 “가장 큰 장점은 팀워크예요. 팀 분위기가 좋아서 경기 중에 서로 소통하는 데 거리낌이 없어요. 그리고 공격수와 수비수가 골고루 실력이 좋아서 경기력에 빈틈이 별로 없고, 그만큼 저희가 원하는 경기를 펼칠 수 있어요. 또 정말 멋진 코치의 노력과 희생, 평소엔 무뎡뎡하지만 저희를 아껴주시는 감독님이 계셔서 저희가 즐겁게 축구를 할 수 있어요.”

Q. 앞으로 여러분의 목표가 궁금해요.

백지은 “우선 올해 가장 큰 대회인 소년체전에서 꼭 우승하고 싶고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백지은’이라는 이름을 모를 수 없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정하운 “연령별 대표부터 꾸준히 뽑혀서 국가대표 팀에서도

뛰고 싶고요. 사람들이 제 이름을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축구 선수를 떠올려주면 좋겠어요.”

김유리 “멋진 선수로 성장해서 대한민국 여자축구 기록을 새롭게 갈아 치우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Q. 동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백지은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고, 주장으로서 나도 열심히 할 테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이 노력하자!”

김유리 “제가 세븐틴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팀 구호도 부석순(세븐틴 멤버 승관, 호시, 도겸) 노래 ‘파이팅 해야지’에서 따와서 ‘파이팅, 파이팅, 해야지!’를 외치던 말예요. 앞으로도 다 같이 ‘파이팅 해야지!’를 외치면서 목표를 향해 즐겁게 뛰면 좋겠어요.”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어른들이 여기에 있단다

최근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가 큰 인기를 끌었다. 극중 끔찍한 학교 폭력 피해자인 ‘동은’은 어른이 되어 자신을 괴롭힌 동창들에게 직접 벌을 내린다. 결국 ‘동은’의 복수는 성공한 셈이지만, ‘동은’의 상처는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드라마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어린 ‘동은’을 도와줄 수 있는 어른의 부재였다. 폭력을 저지하는 어른, ‘동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어른이 있었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전국 시도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Wee)센터’는 학교 폭력을 비롯한 여러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들을 돕기 위한 어른들이 있는 곳이다. 이동소 전문상담교사도 그중 한 사람이다.

함안교육지원청 위(Wee)센터
이동소 전문상담교사



글 김달남 사진 정영선



원스톱 학생상담센터 위(Wee)센터

2008년 교육부에서 도입한 ‘위(Wee) 프로젝트’는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종의 통합지원 서비스망이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히 학교폭력·학업 중단 등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들에게 따뜻한 안전망을 만들어 주기 위해 시작되었다. 학교에는 ‘위(Wee)클래스’, 교육지원청에는 ‘위(Wee)센터’, 교육청에는 ‘위(Wee)스쿨’ 체계로 운영된다. 그중 함안교육지원청 ‘위(Wee)센터’에서 근무하는 이동소 선생님은 올해 17년차 전문상담교사다.

위(Wee)센터는 진단-상담-치료가 가능한 원스톱 학생상담센터로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가 필수적으로 근무한다.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여러 방면으로 전문 인력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인적, 가족적, 교육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지원사업은 물론 학교 순회 상담, 학교 예방 교육, 전문상담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는 위기는 학교 폭력뿐 아니라 여러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학업 중단, 성문제, 자해, 자살 시도, 최근에는 도박과 약물도 문제가 되고요. ‘위(Wee)센터’에서는 이런 학생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치유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보다 심각한 상황에 처한 학생은 경남아이좋아희망드림센터*로 연계하고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01 위(Wee)센터 놀이치료실

***위(Wee) 프로젝트**
Wee는 We(우리들) + education(교육)
We(우리들) + emotion(감성)의 합성어

***경남아이좋아희망드림센터** 경남교육청이
계획하고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의료지원시스템으로 전문의가
초·중고등학생의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아이들의 성장을 믿어주는 마음

그동안 선생님이 만난 학생들의 수는 셀 수 없이 많다. 그중엔 여전히 마음에 박힌 못으로 남아있는 학생들도 있다.

“상황에 따라 회복에 긴 시간이 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길고 캄캄한 터널을 그 아이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기분이 들어요. 그런 아이들이 무사히 학교에 적응하고 졸업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몽글하죠.”

또한 학교 폭력 가해 등을 이유로 특별 교육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교육과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것도 ‘위(Wee)센터’의 주요한 업무다. 모든 학생이 건강하게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로 센터를 찾아왔든 학생들에게 늘 해주는 말이 있어요. 오늘은 네가 이런 이유로 여기에 오게 되었지만, 다음에는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거야. 너는 잘 할 수 있고 너 자신을 꼭 믿어주기를 바란다.”

이동소 선생님은 말한다. 아이들의 성장은 계절과 달라서 꽃이 피는 속도가 다 다르다고. 그러므로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 명의 상담자이자 어른으로서 그가 가진 철학이다. 그리고 자신 또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보호자 대상 특별 교육을 진행할 때 마음이 더욱 쓰인다고 했다.

“가해 학생 보호자들은 대부분 침울하고 막막한 표정으로 찾아오세요. 그분들에게 학교 폭력의 정의부

터 가정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알려드리죠. 결국 아이들에게 가장 가까운 어른은 보호자니까요. 한번은 교육에 참여한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다 내 잘못 같아 자괴감이 많이 들었는데, 다시 힘을 내서 아이를 사랑해줘야겠습니다.’ 그럴 때 저도 보람을 느끼죠.”

언제든 상담실의 문은 열려있습니다

이동소 선생님은 ‘위(Wee)센터’에 근무하기 전, 고등학교에서 12년 동안 전문상담교사로 근무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 교사들이 겪는 고충 또한 잘 이해하고 있다.

☎ “저희 ‘위(Wee)센터’는 ‘위(Wee)클래스’의 상담 업무를 지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계신 상담 교사들의 역량 강화 연수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사실 좋은 상담은 좋은 상담자에게서 이뤄지는 것이거든요. 연수를 통해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본인의 성장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얼마나 사명감을 갖고 아이들을 만나고 계신지 느껴져요. 그런 부분이 저에게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아요. 바람이 있다면 학교 안에서 상담 교사의 위치와 역할이 더욱 존중되었으면 해요.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될 테니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학교 어디에선가 아무에게도 하지 못할 이야기를 마음에 안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려워하지 않고 상담실 문을 두드려보기를 권한다.

☎ “상담은 자신의 마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이에요. 나에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상담을 하러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상담 선생님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상담실의 문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열려있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지원청 Wee센터 현황		
창원	055-210-0461~5	창원교육지원청 후관 1층
마산분원	055-250-7611~5	마산교육지원센터 2층
진주	055-740-2091~8	진주교육지원청 4층
통영	055-650-8025~7	통영교육지원청 3층
사천	055-830-1544~9	사천교육지원청 3층
김해	070-8767-7571~7	활천초등학교 서관 4층
밀양	055-350-1490~7	밀양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1층
거제	055-636-9670~5	거제교육지원청 별관 2층
양산	055-379-3261~9	양산교육지원청 2층
의령	055-570-7136~9	의령교육지원청 1층
함안	055-580-8015~8	함안교육지원청 3층
창녕	055-530-3505~9	창녕교육지원청 3층
고성	055-673-3801~2	고성교육지원청 2층
남해	055-860-4144~6	남해교육지원청 별관 2층
하동	055-880-1945~6	하동교육지원청 1층
산청	055-970-3037~40	산청교육지원청 2층
함양	055-960-2723~7	함양교육지원청 3층
거창	055-940-6191~7	거창교육지원청 3층
합천	055-930-7061~4	합천교육지원청 3층

학교폭력 대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코딩교육인증제

특집 기획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이 선도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은 무엇일까요?

미디어에서 접하는 지식과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탐구하며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여 사회에 참여하는
역량은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 소양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과
코딩교육인증제를 소개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사업을 소개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이란?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률이 증가하면서 미디어 플랫폼 확장 및 의존도 상승 등 디지털 환경의 확산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은 '디지털 미디어(digital media)'와 '문해력(literacy)'을 합친 말입니다. 디지털 미디어는 정보를 주고받는 디지털 매개체이고, 문해력은 그러한 정보를 읽고 쓰는 능력입니다. 즉,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은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에 접근하고 그 미디어의 메시지를 분석·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미디어 메시지를 제작하고 참여하는 능력'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추진사항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도움자료 제작 및 보급

- 2022년에는 <아이북과 함께하는 미디어 교육 활성화 콘텐츠 활용 수업 길라잡이>를 개발하여 전 학교에 보급
- 아이톡톡 탑재 경로 : 웨일클래스 > 톡톡나눔터 > 과학융합 & 수학 & 정보 > 정보교육 >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 2023년에도 도움자료 제작 및 보급 예정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운영 학교

-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별 자체 계획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진행

지역	학교
거제	거제고등학교
김해	용산초등학교
거제	금반초등학교
함양	계룡초등학교
의령	의령초등학교

지역 연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 총 10개의 전문적학습공동체가 디지털 미디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

소통·참여형 디지털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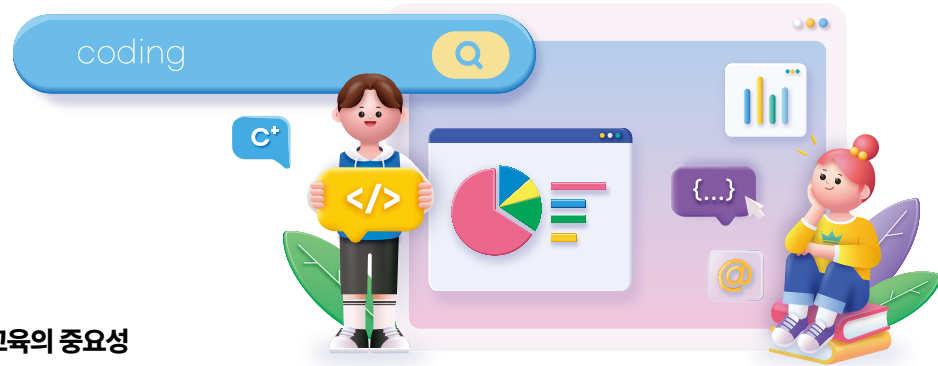
-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학생 활동단 4팀, 교사 활동단 10명, 학부모 활동단 10명
- 경남을 대표하여 전국적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활동 수행, 수업 연구, 실천 사례 공유

코딩교육의 중요성



코딩교육이란 무엇을 말하는것일까요?

코딩(Coding)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컴퓨터 언어인 코드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명령어를 입력해서 이와 같은 순서대로 만들어어나가는 과정을 ‘알고리즘’이라고 하며 그림을 그리기 전 ‘밑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고리즘을 잘 짜게 되면 프로그램 오류를 줄이게 되고 정확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최근 많은 교육현장에서 코딩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딩교육의 중요성

코딩교육은 컴퓨터 언어를 통해 코드를 짜는 방법을 배우고 프로그램 개발까지 가능하게 해주는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영국, 이스라엘, 호주, 미국, 한국 등에서 정규 교육 과정에 편입되어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이미 교육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교육은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기술과 개념을 이용하여 교육 분야입니다.

마케팅의 귀재 스티브 잡스 또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은 코딩을 배워야 합니다. 코딩은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 줍니다.” 코딩교육은 블록놀이, 레고 같은 단순한 게임에서부터 로봇 조립과 프로그램을 통한 인텐시브 한 방법까지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으며 컴퓨터 사고를 통해 논리, 사고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왔고, 소프트웨어(SW)의 지식과 교육은 기본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사물들은 사물인터넷(IoT)로 연결되어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코딩교육은 하루하루 숨 가쁘게 진행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꼭 필요한 기술이며 소프트웨어(SW)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 중등 필수과목 코딩교육 중요성은 점점 그 방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코딩교육인증제 알아보기

코딩교육인증제란?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코딩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코딩교육인증제는 여러분의 코딩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경상남도교육청만의 특별한 코딩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코딩 역량 확인 제도(코딩교육 20시간 이수 시 발급)로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에 기록하여 진로 설정에 도움을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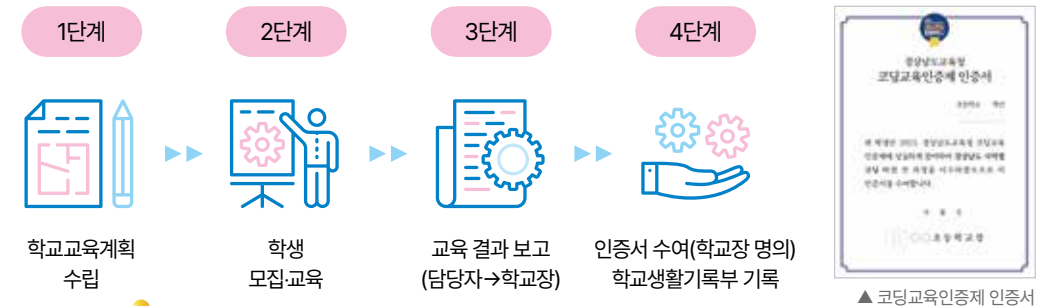
경남코딩한바퀴 책자 제작 및 보급

- 경남의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현장성을 가지고 개발한 교재
- 경남의 18개 시·군을 주제로 특색 있는 20차시의 코딩 프로그램으로 구성
- 학생의 삶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흥미도 향상



아름다운 경상남도를
여행하며
코딩도 배우고보자!

학교에서의 운영절차



경상남도교육청 코딩교육인증제
유튜브 채널을 안내합니다.
유튜브에서 <경상남도교육청 코딩교육인증제>를 검색하면
여러분의 코딩 공부를 친절하게 도와줄 영상들이 탑재되어 있어요!



함께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학교

양산영천 초등학교

양산시 동면에 위치한 영천초등학교는
올해 개교 100주년을 맞은 역사 깊은 학교다.
그동안 6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덕분에 오래 전 학교를 졸업한 어른들과
현재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한 마을에서 살아간다.
학교는 마을의 소중한 추억이자 미래다.

그래서일까.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학교에
두 번의 존폐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영천초등학교를 지켜냈다.
그리고 학교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
또 한 번 100년의 미래를 꿈꾸고 있다.

함께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양산영천초등학교로 떠나보자.

떠나는 학교에서 찾아오는 학교로

그동안 영천초등학교에는 두 번의 존폐 위기가 있었다. 2013
년에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저출생으로 인한 학생 감소로 폐
교가 논의되었다. 이에 학부모, 동창회, 지역사회가 ‘학교 살
리기’를 위해 힘을 모았고 통학버스 운영으로 찾아오는 학교
의 기반을 구축했다. 그리고 2021년, 신도시인 사송지구로 학
교 이전이 논의되면서 또다시 존폐 위기에 처했다. 이번에도
학교를 살리려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폐교 반대 운동을 벌였
다. 김현지 교장이 영천초등학교로 발령받은 것은 2021년 9
월, 학교 이전 문제로 학교와 학부모, 지역민 간에 발생한 갈
등의 상처가 남아있는 때였다.

“영천초등학교는 제가 교장으로 발령받은 첫 학교예요. 현장
에 와서 교육공동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학교를 지켜내
고 싶어 하는 분들의 마음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하지만 마을
에서 거주하는 학생 숫자가 적어서 이대로는 자연스럽게 학

교가 없어질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었죠. 그래서 영천교육
공동체와 함께 ‘우리 학교를 찾아오는 학교로 만들자’는 목
표를 공유했고, 한마음으로 동의를 해주신 덕분에 학교를 바
꿔나가는 노력을 시작한 거죠.”

김현지 교장은 학생 수를 늘리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2021년 11월에는 광역통학구역 지정, 2022년 9월에는
양산교육지원청에서 통학 편의 제공차 버스가 1대 추가
지원되면서 웅상, 석산지구에서 학생을 유치할 수 있었다. 하
지만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선 학교의
공간, 문화, 교육 과정이 변화해야 한다고 믿었다.

“제가 꿈꾸는 학교는 ‘학생이 오고 싶은, 학부모가 보내고 싶
은, 교직원이 머무르고 싶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예요.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선 행복학교(경남형 혁신
학교)로 선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행복학교는 ‘교
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배움과 협력이 있는 미래형 학
교’이고, 우리 학교가 지향하는 철학과도 일치했습니다.”

교육공동체 모두 행복한 학교

2022년 영천초등학교는 행복학교로 지정되었고, 학교 특색 교육으로 ‘한지붕용오름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주제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재구성한 프로젝트다. 1학기 주제는 ‘마을’로 아이들은 양산의 곳곳을 발로 누비며 배우고, 2학기는 ‘꿈’을 주제로 다양한 진로를 체험하고 탐색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를 바탕으로 아이들은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다양한 경험을 누리며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간혁신 프로젝트 수업의 일환으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두 평 집짓기’가 진행되었다. 6학년 학생 12명이 직접 목조 주택 짓기에 참여했고, 그렇게 학교 운동장 한편에 탄생한 ‘술솔행복방’은 아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놀이 공간이 되었다. 5학년 학생 5명은 교내에서 키우는 작두콩으로 작두콩겉질차와 작두콩누룽지과자를 만들어 ‘2022년 부산경남 비즈쿨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하기도 했다. 학생들이 원하는 동아리 운영과 무료로 운영되는 방과 후 프로그램도 학교의 자랑거리다. 또한 영천초등학교는 교직원들의 자

학교 변신은 무죄



울성과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지향한다. 학교업무전담팀 운영으로 교사들의 잡무를 줄이고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다모임을 통해 교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개선한다. 교직원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학부모와 지역민도 학교의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마침 인터뷰를 위해 학교에 방문한 날엔 학부모회 공간인 ‘술솔사랑방’에 모인 엄마들이 독서 모임을, 도서관에서는 ‘책 읽어주는 엄마’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마을형 협력 학교인 ‘영천문방구’도 영천초등학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이다. 학교 앞 주택에 자리한 ‘영천문방구’는 전국 최초 무인 문방구이자 학부모와 지역민이 교사가 되어 아이들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둔 공간이다. 이처럼 영천초등학교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학교로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양산영천초등학교

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현재 영천초등학교 전교생은 60명이다. 영천학구 학생 18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학교를 선택해서 온 아이들이다. 2년 사이 학생들이 떠나가는 학교에서 찾아오는 학교가 된 것이다. 올해 초, 김현지 교장은 학부모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학교를 살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이었다.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죠. 하지만 학교의 변화는 결코 저 혼자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만들어온 것이거든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덕분에 저도 학교에 오는 일이 매일 설레고, ‘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 종이 울리자 운동장으로 나온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뛰어 놀았다. 조용했던 학교가 금세 활기를 띠었다. 100년의 역사를 지킨 만큼,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꿈꾸고 있는 학교. 학교의 시간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흐른다는 걸 영천초등학교를 보며 또 한 번 배운다.

- 01 영천문방구 입구
- 02 김현지 교장과 아이들
- 03 영천문방구에서 열린 요리 수업
- 04 술솔행복방 짓기에 참여한 아이들
- 05 책 읽어주는 엄마 활동



MINI INTERVIEW

6학년 1반 학생들에게 들어보았습니다.

박수현 저는 올해 3월에 친구 어머니 추천으로 전학을 왔어요. 통학버스를 타면 40분이 걸리는데, 그래도 학교에 다니는 게 재밌어요. 특히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밴드랑 골프를 하고 있는데 다 무료여서 좋아요.

김은교 저도 수현이처럼 아빠 친구 분의 추천으로 올해 전학을 왔어요. 그 전에는 학교 가는 게 귀찮았는데 요즘엔 매일 학교에 가고 싶어요. 분위기가 자유롭고 학생들이 원하는 걸 많이 들어주세요. 전학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정윤서 저는 유치원 때부터 꼭 이 학교를 다녔는데 최근 몇 년 사이 학교가 많이 바뀌었어요. 도서관도 용오름도서관으로 바뀌었고, 영천문방구도 생겼고요! 저희 학교 자랑거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현장체험학습을 다양하게 많이 가서 좋고요. 마을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수업이 많아서 재밌어요.



06 6학년 1반 박수현, 김은교, 정윤서 학생
07 작두콩으로 창업을 고민하는 과정

막내딸 보는 마음으로 지역사회 돌보는 국가유공자 ‘기부왕’

사천 김정웅 어르신

울거나 떼쓰는 일 한번 없던 순한 막내딸. 보기만 해도 배부르던 그 고운 아이는 예고도 없이 일찍 부모의 곁을 떠났다. 막내딸 ‘영채’의 이름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며 그에게 못 해준 것을 대신하듯 장학금으로 지역사회를 돌보는 한 사람. 사천의 김정웅 어르신을 만나 기부로 ‘진짜 부자’가 된 이야기들 들어봤다.

***베트남전쟁** 1960년에 결성된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NLF)이 베트남의 완전한 독립과 통일을 위해 북베트남의 지원 아래 남베트남 정부와 이들을 지원한 미국과 벌인 전쟁. 한국은 베트남전쟁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병했다.

***한국전쟁** 1950년부터 1953년까지 같은 민족인 남한과 북한이 싸운 전쟁.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휴전 협정을 맺을 때까지 약 3년간 지속되었다.

Kim Jung Woong

막내딸
‘영채’ 이름으로
이룬 것들

김정웅 어르신을 짧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두 개다. 하나는 ‘베트남전쟁 참전 국가유공자’, 하나는 ‘기부천사’. 베트남전쟁에 참전했을 당시가 22세, 기부를 실천하기 시작한 것이 75세 즈음이니 50년 넘는 세월만큼이나 멀리 떨어진 일 같다가도, 참전과 기부는 생각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가 주요 기부 대상으로 정해둔 이들이 바로 베트남 등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아이 들을 키우는 한부모가정의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기 시작했지요. 알음알음 사연 있는 집들을 돕다가, 어느 해부터는 그냥 학교에 전달했어요.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도와달라고요.”

김정웅 어르신의 마음 씀씀이가 5년째 가닿는 곳은 사천 서포중학교와 곤양중학교.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오가는 돈을 장학금으로 쾌척하고 있다. 나눔의 계기에는 또 다른 아픈 사연도 깃들어 있다. 그가 장학금 전달을 위해 만든 ‘영채장학회’ 속 ‘영채’라는 이름. 바로 그의 막내딸이다.

“1남3녀 중 막내지. 유치원 입학도 못하고 그랬으니 여섯 살인가 일곱 살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착했는지, 초저녁에 자면 아침에 딱 일어나, 뭐가 갖고 싶어도 ‘안 된다’ 한마디 하면 떼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아이들한테 베풀 수밖에 없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막내딸 영채가 불의의 사고로 곁을 떠나던 날. 자그맣던 몸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아버지의 손에 들어왔다. 아이를 바다에 떠나보내던 날,



베트남전쟁 당시 현지에서 선물로 받은 칼

그때가 생각나는 듯 김정웅 어르신은 양손을 동그랗게 모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오륙도를 다시 보겠다는 마음으로

1945년 해방부터 6.25까지. 전쟁의 역사를 겪은 여느 세대가 그랬듯 김정웅 어르신의 삶도 오래도록 고단했다. 1943년생으로 어린 시절 6.25를 겪고, 초등학교 때는 ‘아이스케키(아이스크림)’를 팔아가며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애썼다. 중·고등학교는 야간을 다녔는데, 지금도 그때의 어둑어둑한 하룻길이 눈에 선하다.

“집이 진주 인사동이었는데 그때는 길이 포장도 안 돼 있고 험했어. 야간 수업을 마치면 밤 10시, 11시가 되는데 2km 가까운 비포장 도로를 걸어다녔습니다. 왕

복으로 치면 네 시간쯤 되지요. 가다 보면 잠도 오고, 졸려서 돌부리에 걸려 자빠질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그마저도 졸업을 하지 못한 채 고등학교 3학년, 자원 입대로 육군에 갔다. 당시 복무 기간은 31개월. 제대 한 달을 남겨두고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다. 배낭 하나 달랑 메고 선발대로 가서 헌병대와 미 육군 범죄수사대 CID의 업무를 도왔다. 다리 밑에서 보초를 섰던 기억, 장군들을 수호하며 무사히 비행기를 태워 보내느라 애먹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무엇보다 생생한 장면은 베트남으로 떠난 날의 풍경이다.

“우리가 선발대로 갈 때 부산 오륙도에서 갔거든요. 배를 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오륙도가 다섯 개로 보였다, 여섯 개로 보였다, 아른아른해요. 그렇게 출발하면서 제가 생각하기로 ‘아, 내가 죽어 올지 살아올지 모르겠구나’... 저는 눈물을 잘 안 흘리는데 마음으로 울면서... ‘이 오륙도를 다시 볼 것이냐’ 그런 생각으로

떠났던 기억이 나요.”

이후 ‘군인 김정웅’은 상이 6급으로 전역했고, 남동생도 참전했다가 한국에 돌아온 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전쟁의 상흔이 삶 곳곳에 남았지만, 그것이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다. 군인 운전면허를 취득해 군수 물자를 운반하는 일도 했고, 이후에는 진주 삼현여고 행정실에서 30년 동안 일하며 주말에는 농사도 지으며 살았다. 부지런히 삶을 일구는 가운데서도 꾸준히 기부를 꿈꿨고, 칠순이 넘고부터 조금씩 실천할 수 있었다.

‘진정한 부자’가 된 어른 김정웅

요즘 가장 기쁠 때는 장학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만나거나 감사 편지를 받는 순간이다. 학교의 요청

- 01 서포중학교 영채장학금 전달식(2022.5.)
- 02 사천교육지원청 기부천사 감사패 수여(2022.12.)



으로 장학금 전달식을 갖기도 하는데, 평소 책이나 잡지에서 읽었던 내용을 기억해 학생들에게 전하기도 한다. 이런 교육 기부를 인정받아 사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고등학교 가기 전에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장학금 덕분에 이뤘습니다” 하는 편지를 받으면 더 이상 뿌듯할 수가 없지요. 내가 어린 시절 편하게 살고 공부만 했다면 그런 편지도 못 받았을 거야.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순간이 있는 거지.”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덧없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그래도 스스로 ‘성공한 인생’이라 자부하는 인생은 꽤 괜찮은 인생 아닐까. 남은 생,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기부를 실천하겠다 약속하는 김정웅 어르신의 목소리가 더없이 힘차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부자 되는 게 성공하는 거고, 저는 사람을 돕고 싶었는데 그걸 이루었으니 성공한 거지요. 부자가 따로 있습니까.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고 언제든지 훌훌 떠날 수 있으면 부자지요.”



김승현 작가 라탄·자개공예 전시

라탄과 자개가 어울려 마침내 완성된 하모니

“문화와 예술을 엮어내다”



01



02

국내 최초로 나전칠기와 라탄공예를 결합한 작품 만들기를 시도한 김승현 작가.
경상남도교육청과 함께 라탄과 자개공예의 어울림을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다.
은은하게 깔리는 라탄의 배경에 화려한 자개를 더해 특별하고 새로운 느낌을
강하게 표현하는 김승현 작가만의 작품 세계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라탄과 자개의 하모니를 느끼러 가보자!

나무 위에 한땀 한땀 피운 오색 빛깔 꽃

연고도 없는 통영에 무작정 내려와 평소 관심 있었던 나전 칠기를 배우게 된 김승현 작가는 점점 오색영롱한 자개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전통 문양과 소재가 주는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조금은 특별한 작업에 빠져 있다. 등나무인 라탄(rattan)을 엮어 완성된 골조에 다양한 문양을 자개로 표현하는 작업이 그것이다. 처음 이 작업의 시작은 작업을 위한 뼈대인 골조를 직접 원하는 형태와 사이즈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에서 시작되었고, 자개와 가장 잘 어울리는 골조 소재인 나무를 다루는 공예를 찾은 것이 바로 라탄공예였다.

트레이를 불꽃놀이가 수놓은 것 같은 나전 라탄 트레이부터 국화문양이 돋보이는 나전 라탄 트레이, 자개와 라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나전 라탄 테이블까지. 라탄 위에 자개를 심어 나무에서 꽃이 피듯 조화로운 작품을 만들어 낸다.



03

땅과 바다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땅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 자연의 따뜻한 색감과 재질을 가지고 있는 라탄과 깊은 바다에서 태어나고 자라 오색 빛깔의 화사함을 가진 자개는 서로 닮은 듯 다른 자연 소재이다. 또한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엮임이 있는 이국적 느낌의 라탄과 그 위를 화사하게 전통 문양으로 수놓은 자개가 어우러져 완성된 자개 라탄 작품은 우리 눈에 익숙한 듯 이색적인 느낌으로 다가온다.

눈이 즐거운 전시를 원한다면 김승현 작가의 라탄·자개공예 전시에서 한땀 한땀, 한을 한을 환상적인 하모니를 느낄 수 있길!

김승현 작가 라탄·자개공예 전시

기간 2023. 6. 1.(목)~2023. 6. 28.(수)
장소 경남교육청 제2청사 1층 갤러리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64)



- 01 국화문양 자개 라탄 트레이
- 02 꽃문양 자개 라탄 합
- 03 국화꽃향기(海)
- 04 꽃문양 자개 라탄 합

이달의
경남교육 행사를
소개합니다

6
누리달
2023

-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 김해도서관
-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
- 마산도서관
-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
- 유아교육원 김해체험분원
- 유아교육원 진주체험분원
- 창원도서관

SUN	MON	TUE
	창원도서관 체험·강연 프로그램 안내	
VR 프로그램 책담 2층 책고리 / 10:00(평일), 14:00(주말) 6.3.~6.29. 중 해당 날짜 행사 (3, 7, 8, 14, 15, 17, 21, 22, 28, 29)	샌드 크래프트 책담 1층 누리홀 / 10:00, 16:00 6.3.~6.25. 중 해당 날짜 행사 (3, 4, 10, 11, 17, 18, 24, 25)	원데이 클래스 꿈담 4층 꿈1 / 6.3. / 10:00 클레이 투영2단 케이스 만들기 / 13:30 미니 드림캐쳐 만들기 꿈담 4층 꿈1 / 6.17. / 10:00 블록 빨간스포츠키 만들기 / 13:30 클레이 굴과 친구 만들기
4 ● 10:00~11:00 / 책오름자료실 / 독서당 이야기 할머니 <깜장 공벌레>	5	6
11 ● 10:00~11:00 / 책오름자료실 / 독서당 이야기 할머니 <모두 다 주세요>	12 ● 10:00~11:00 / 책오름자료실 / 독서당 이야기 할머니 <강아지 똥> ● 14:00 / 2층 지혜마루 / 대관공연 <행복마을 오케스트라> ● 14:00 / 책담 2층 책벗 / 체험 <책담 하루 수업>	13 ● 14:30~17:00 / 김해분청도자박물관 2023. 유치원 교원 힐링체험(~6.14.까지)
18 ● 10:00~11:00 / 책오름자료실 / 독서당 이야기 할머니 <강아지 똥> ● 14:00 / 2층 지혜마루 / 대관공연 <행복마을 오케스트라> ● 14:00 / 책담 2층 책벗 / 체험 <책담 하루 수업>	19 ● 10:00~17:00 / 진주체험분원 누리집 7월토요가족체험 사전신청 기간 (~6.21.까지)	20 ● 10:30 / 청보리책방 / 강연 <경남을 만나다>
25 ● 10:00~11:00 / 책오름자료실 / 독서당 이야기 할머니 <데굴 데굴 금방울>	26	27

WED	THU	FRI	SAT
학생 체험프로그램 <정글북> 유치원 해당 날짜에 행사 (2, 8, 22) 초등 해당 날짜에 행사 (1, 7, 8, 9, 14, 15, 16, 21, 22, 23, 28, 29, 30) 중등 해당 날짜에 행사 (9)	1 ● 동내책방 운영 시간 / 오누이 북앤샵, 정보리책방, 책방19호실 동내책방 스탬프 투어 (~6.3.까지) ● 10:00~15:00 / 김해체험분원 자연과 친구되는 유아생태체험 (~6.30.까지)	2023. 6. 3(월) 10:00 이야기가 있는 코딩 2023. 6. 10(월) 10:00 이야기가 있는 코딩 2023. 6. 17(월) 10:00 이야기가 있는 코딩 2023. 6. 24(월) 10:00 이야기가 있는 코딩 2023. 6. 30(일) 10:00 이야기가 있는 코딩	3 ● 16:00~17:00 / 북카페 / 콘택트 버블쇼 ● 10:00 / 1층 유아실 / 무당 벌레 비누 만들기 ● 14:00 / 3층 시청각실 / 함께 그린 아카데미I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 14:00~16:00 / 1층 만장대실(메이커 스페이스) / 이야기가 있는 코딩(~6.24.까지) ● 14:00 / 지혜마루 / 이유경 <북극의 오늘 우리의 미래> ● 15:00 / 별빛마루 / 동화랑 놀자(매주 토요일, 17일 제외) ● 15:00~15:40 / 1층 세상을 볼 / 클래식 기타 공연 ● 10:00 / 1층 상상창작방 / 웹툰으로 상상창작(~6.24.까지) ● 16:00 / 2층 지혜마루 / 재능기부공연 <팝프라이 오케스트라> ● 진주체험분원 / 문화가 있는 과학체험 ● 10:00 / 해당 3층 해당홀 / 강연 <책이랑 아가마중> ● 13:00 / 도서관 전체 / 체험 <다자녀추제> ● 14:00 / 해당 1층 해2 / 체험 <토요책동산(커피화분 만들기)> ● 14:00 / 해당 3층 해당홀 / 다문화 프로그램 <친구랑 지구 한 바퀴> 6차시(호주)>
14 ● 10:30 / 책방19호실 / 강연 <경남을 만나다>	8 ● 14:00 / 꿈을 공작소 도서관 X 동내 책방 <감정 오일, 나만의 향수 만들기>	16 ● 14:30~17:00 / 김해분청 도자박물관 / 2023. 유치원 교원 힐링체험 ● 소규모유치원으로 찾아가는 과학체험	10 ● 16:00~17:00 / 북카페 / 노이트리오와 함께하는 이야기 클래식 ● 11:30, 12:30 / 1층 유아자료실 / 책 읽어주세요 ● 14:00 / 3층 시청각실 / 환경인형극 <남비요괴가 나타났어요> ● 14:00 / 지혜마루 / 밴드 마그(MAG) 콘서트 ● 14:00~16:00 / 3층 무학전당 / 경남(문학)을 만나다 강연 <박경리 작가의 생애와 작품세계> ● 15:00~15:40 / 1층 놀이꽃밭 / 어린이 인형극 <피노키오> ● 09:30~12:00, 14:00~16:30 / 김해체험분원 / 가족나들이 토요체험
21 ● 11:00 / 지혜마루 / 수요음악회 <조지거슈인>	15 ● 14:00 / 2층 구지봉실 신중년클래스 <찬란한 내 인생 이여라>	24 ● 15:00~16:30 / 북카페 / 정글in 그림책작가 <정해영> 몸짓극 ● 14:00 / 지혜마루 / 이원복 <와인의 세계> ● 14:00~16:00 / 3층 무학전당 / 토요 인문 특강 <은유 작가 강연> ● 11:00 / 2층 지혜마루 / 마술&인형극 공연 <꿈지와 왕룻구렁> ● 15:00 / 2층 지혜마루 / 재능기부공연 도서관 속 음악회 <베르디의 서재> ● 11:00 / 책담 1층 꿈뜨락 / 공연 <동화인형극 (꼬미의 마음청진기)> ● 14:00 / 책담 2층 책벗 / 체험 <똑똑한 지구 어린이> ● 15:00 / 책담 1층 해오름 / 공연 <무대위의 인문학>	17 ● 16:00~17:00 / 북카페 / 뮤지컬 <토끼야 용감하게> ● 14:00 / 3층 시청각실 / 정지아 작가와의 만남 ● 11:00 / 별빛마루 / 별빛 인형극 <수상한 과자과계> ● 14:00 / 지혜마루 / 인문학 콘서트 <김광현의 판판판> ● 15:00~15:40 / 3층 무학전당 / 샌드아트 <요컨 내 떡> ● 10:00 / 1층 동화방 / 체험 <책 읽어주세요> ● 15:00 / 2층 지혜마루 / 힐링공연 <내 이웃의 목소리II> ● 14:00 / 책담 2층 책벗 / 체험 <똑똑한 지구 어린이> ● 14:00 / 해당 3층 해당홀 / 다문화 프로그램 <친구랑 지구 한 바퀴> 7차시(사우디아라비아)> ● 15:00 / 책담 1층 꿈뜨락 / 공연 <뮤지컬 배우 박완의 (프로포즈)>

- 프로그램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면 관계상 일부만 소개하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각 기관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산들바람 따라 떠나는 양산 여행

법기수원지·통도사

늦봄이나 초여름에 새로 나온 잎의 푸른빛, 신록.

신록이 찬연하다. 당장 고개를 들어 인근 산을 바라보라.
일 년 중 오직 이때만 볼 수 있는 연둣빛 세상에 눈이 호강한다.
여름의 문턱을 넘어가는 지금, 맑은 공기와 탁 트인
풍경만으로 심을 주는 곳을 찾아 떠나보자.



글 최규정 사진 백동민

- 01 법기수원지 입구의 벚나무
- 02 수령 130여 년의 법기 반송
- 03 법기수원지 전경

맨 처음 눈을 돌 곳은 양산시 천성산에 자리한 법기수원지

1932년에 축조됐다. 수영강의 지류인 법기천의 발원지인데 상수원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출입이 금지되다가 2011년 7월 15일에 일부 구간이 개방됐다. 70여년간 인간의 발이 닿지 않았던 이곳은 자연의 위엄을 제대로 보여준다. 끝 간 데 없이 하늘로 뻗은 편백나무는 한눈에 다 담을 수 없다. 특히 30~40m에 달하는 개잎갈나무(히말라야시다)와 국내에서 보기 드문 반송 7형제가 유명하다. 반송은 한 뿌리에서 가지가 넓게 부채 모양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소나무인데 독오르기 전과 독 위에 올라서면 만날 수 있다.

습한 기운을 담고 불어온 바람도 나무 그늘을 만나면 청량하게 바뀐다. 그 바람을 맞으며 벤치에 앉아 편백 숲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을 맡는다. 너무나 잘 알려졌지만 편백나무는 피톤치드를 내뿜는다. 사선으로 뻗은 돌계단을 올라가면 반송과 어우러져 빼어난 경치를 선사하는데 이내 맑디맑은 수원지가 모습을 드러낸다. 수원지 끝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취수탑이 풍경과 조화를 이루며 수원지 아래로 물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좀 더 걷고 싶다면 천성산 멜로디 누리길을 걸어보자. 법기수원지에서 무지개폭포에 이르는 6km를 체험 숲속 테마 누리길로 만들었다.

03





스마트폰의 GPS(위치정보시스템) 기능을 활용해 주변 풍경과 어울리는 구간별 두 가지 테마(숲속의 노래, 계곡의 노래)를 설정해 숲길을 거닐 때 음악을 들으며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사실 양산은 통도사를 빼고는 이야기하기 어렵다.

‘통도(通道)’라는 절 이름은 전국의 많은 승려가 이곳에서 득도한다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하고, 만법에 통달하여 일체중생을 제도한다는 뜻도 있다. 또 통도사가 깃들여 있는 영축산(또는 영취산)이 인도 영축산과 통한다는 의미도 있다.

통도사는 불상이 없는 것이 큰 특징인데 이는 대웅전 뒤편의 금강계단에 진신사리를 봉안했기 때문이다.

홍매화로 유명해 봄에 들뜨던 산사는 이제 느린 걸음으로 만끽할 신록을 선물한다. 산내 암자로 들어와 물을 옆에 끼고 걷다 보면 일주문 옆 징검다리 ‘삼성반월교(參星半月橋)’가 눈에 들어온다. 삼성반월은 ‘마음심(心)’을 풀어쓴 것.

04 양산 통도사에서 석가탄신일을 맞이해 입구에 연등을 설치했다.
05 양산 통도사 계곡의 다리



삼성은 세 개의 점을, 반월은 나머지 한 획을 나타낸다. 따라서 ‘삼성반월교’는 곧 ‘일심교’를 의미한다. 깨끗한 한 가지 마음으로 건너야 하는 다리라는 뜻이다. 다리에는 난간도 없고 폭도 좁다. 이 다리에서 헛된 생각으로 정신을 못 차리면 떨어질 수 있음을 일깨운다.

통도사의 가람 형태는 신라 이래 전통 법식에서 벗어나 있다. 냇물을 따라 동서로 길게 배치된 산지도 평지도 아닌 구름 형태로서 탑이 자유롭게 배치된 자유식의 형태로 갖추고 있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한 상로전(上爐殿)과 통도사 건물 중 가장 오래된 대광명전을 중심으로 한 중로전(中爐殿), 그리고 영산전을 중심으로 한 하로전(下爐殿)으로 구분된다.

어른과 아이 모두 만족하는 양산 교육 여행

막연하기만 한 수학을 만지고 느끼고 깨닫는 양산수학체험센터는 아이들과 함께하기에 좋은 공간이다. 전국 최초의 공교육 기반으로 설립된 양산수학체험센터에는 아르키메데스 나선 관찰기, 4색 지도, 회전체 관찰기, 포물선 반사 실험기 등 50여 종의 대형 수학 교구가 완비돼 있다. 무한 상상실을 지나 체험 수학 교실에서는 수학의 탄생과 문명을 만나게 된다. 주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어 지루할 틈이 없다.

이와 함께 양산에는 도서관이 총 3군데 있다. 범어 워터파크 옆에 자리한 양산도서관, 물금에 있는 양산시립도서관, 독립운동가 윤현진 선생 이름을 딴 북부동의 윤현진도서관이다. 각각 특색이 있어 골라 가는 재미가 있다.

여기에 도내 동부권 학생들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를 체험할 수 있는 동부학생안전체험교육원(가칭)이 이르면 오는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 언젠가 양산을 찾는다면 어른과 아이 모두 만족할 수 있을 듯하다.



06 양산 통도사의 영산전에서 바라본 만세루와 극락전
07-08 양산수학체험센터에서 체험중인 아이들

범기수원지

- 주소 양산시 동면 범기로 198-13
- 운영 여름철(4~10월) 8시~18시, 겨울철(11~3월) 8시~17시

통도사

- 주소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 누리집 www.tongdosa.or.kr
- 운영 매일 6시 30분~17시 30분

양산수학체험센터

- 주소 양산시 물금읍 오봉로 28 서남초등학교 후관동 5층
- 문의 055-381-1203



작은 공, 큰 행복!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독일과 폴란드에서 열렸던
2023년 WTT(국제탁구연맹 국제대회전담기구) 유스 컨텐더 대회의
단연 화제는 형제의 동반 우승이었다.

의령 남산초 6학년 마영민, 5학년 마영준 선수는
대회 U-13, U-11 단식 경기에서 각각 우승하며
세계 무대에 이름을 세웠다.

의령 남산초

마영민·마영준

탁구가족



탁구가족의

탄생

화제가 된 이야기는 또 있었다. 영민, 영준 군의 부모
님 모두 탁구선수 출신이라는 사실. 아버지인 의령 남
산초 탁구부 코치인 마봉현 씨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탁구를 시작해 대학 대표를 거쳐 상무 소속으로 활동
했다. 엄마 조미래 씨도 초등학교 때 선수 생활을 했고
29살에 탁구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따며 탁구인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마봉현 씨에게 탁구를 배우다
부부의 연까지 맺었다. 여기에 이제 막 네 살이 된 막
내 지우 양은 돌잡이 때 탁구채를 번쩍 쥐었다고 하니,
5인 탁구 가족의 탄생을 기대해봐도 될까.

태어난 직후부터 가장 자주 가는 곳도 탁구장, 만나는
사람도 탁구인, 보는 풍경도 탁구 경기였던 만큼 형제
의 선택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처음에는 “나는 탁구
안 해, 심판 볼래” 했던 둘째 영준 군도, 탁구를 치는 형
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레 탁구의 길로 접어들었다.

마영민·마영준 선수 임상 전적(최근 2년)

마영민

한국초등학교탁구연맹 남자부 6학년 랭킹 2위

2022

교보생명컵 전국초등학교 탁구대회 5학년부 개인단식 준우승 단체우승
전국 13세이하부 챔피언탁구대회 개인단식 준우승

2023

세계 청소년 탁구대회 베를린 U-13 개인단식 우승
세계 청소년 탁구대회 폴란드 U-13 개인단식 준우승
전국종별 탁구선수권대회 U-13 개인단식 우승 단체 준우승
회장기 전국초등학교선수권대회 6학년부 개인단식 준우승 단체 우승

마영준

한국초등학교탁구연맹 남자부 5학년 랭킹 1위

2022

전국어린이탁구대회 개인단식 우승
교보생명컵 전국초등학교 탁구대회 4학년부 개인단식우승 단체우승
유소년 탁구선수권대회 U-13 개인복식 우승
세계 청소년 탁구대회 이탈리아-U11 개인단식 준우승
일본 나카시마 슈퍼리그2022 U-10 개인단식 준우승

2023

세계 청소년 탁구대회 베를린 U-11 개인단식 우승
세계 청소년 탁구대회 폴란드 U-11 개인단식 우승

01



01 탁구 훈련 자체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형제는

용감했다

영민 군은 2학년 때부터 눈에 띄는 성적을 거두며 주
목을 받기 시작했다. 영준 군은 코로나19로 대회에 나
갈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대회가 재개되자 곧
장 두각을 나타냈다.

지금은 남산초 체육관에 형제의 수상 소식을 알리는
현수막이 빼곡히 걸려 있을 정도로 꾸준히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형제에게 탁구를 시작한 뒤 가장 기뻐던
순간을 물었더니 역시나 3, 4월 독일과 폴란드에서 일
궈낸 ‘동반 우승’을 꼽았다.

둘째 마영준 “형이랑 같이 우승했을 때 제일 기뻐어요.
연습도 많이 했거든요.”

첫째 마영민 “처음으로 국제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영준
이도 같이 있으니깐 더 기쁨이 컸어요.”

아빠 마봉현 “이전에 국제대회를 한 번 다녀왔는데 아이
들이 시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이번에는



가기 전에 독일, 폴란드 시간에 맞춰서 시차 적응 훈련을 했더니 평소 경기력이 발휘됐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장난으로 ‘한 번만 미치자’ 했는데 준결승을 갖고, 다음에 ‘두 번만 미치자’ 했더니 결승에 갔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미치자’ 했더니...(웃음) 진짜 기대 이상으로 잘해줬어요.”

아빠이자 코치로

‘인생 2막’

아빠이자 코치, 아들이자 선수. 서로 두 역할을 동시에 하다 보니 형제는 학교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형제’로 불리기도 한다. 학교에서만 큼은 ‘아빠’가 아니라 ‘선생님’으로 부르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부작용으로 집에서도 가끔 아빠를 ‘선생님’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탁구선수로 성장해나가는 순간 순간 든든한 스승이자 아빠가 지켜봐주고 있다는 사실은 형제에게 크나큰 힘이 된다.

첫째 마영민 “아빠는 경기가 안 풀릴 때 콧 집어 가르쳐 주셔서 좋고, 엄마는 정신력을 키울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좋아요.”

아빠이자 코치인 마봉현 씨가 보는 두 선수의 장점은 무엇일까.

아빠 마봉현 “둘째 영준이 경우는 승부욕이 강하고 집중력이 높은 것이 장점이고요. 영민이는 뛰어난 순발력과 빠른 두뇌 회전이 장점이예요. 영민이는 몸이 마른 편이라 요즘 근력을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적이 잘 나오는 것에 안주하지 않도록 성실함을 키우는데도 신경 쓰고 있고요.”

상무에서 선수 생활을 마친 후, 경기도에서 탁구센터를 운영했던 마봉현 씨는 ‘탁구 인재를 키워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의령행을 결심했다. 고향으로 가서 창단을 할까도 고민했지만 ‘탁구 명문’ 남산초에서 시작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후배의 권유가 마음을 움직였다. 이 과정에서 첫째 영민 군은 때 이른 유학 생활을

하기도 했는데, 가족들이 본격적으로 이사 오기 전 1년 정도 홀로 숙소 생활을 한 것이다. 함께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이준영 코치도 8살 영민 군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준영 코치 “영민이는 1학년 때 혼자 와서 운동하는 모습부터가 남달랐어요. 적응이라고 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운동하는 생활에 녹아들었고, ‘1학년 맞나’ 싶을 정도로 의젓했거든요. 나중에 보니 형제 둘 다 운동을 좋아하고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었고, 여기에 부모님의 열정이 더해지니 잘할 수밖에요.”

엄마 조미래 “아이들 아빠가 몸소 보여주는 것의 힘이 큰 것 같아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늘 아이들과 함께 나가고 함께 들어오고, 아이들보다 더 많이 움직이거든요. 아이들이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일을 하든 성실하게 끝까지 해야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나중에도 ‘탁구는 즐거운 운동’으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누구나 다 아는 선수가 될 때까지

의령 남산초 탁구부 선수는 현재 14명. 영민, 영준 형제는 어느덧 학교의 최고 선배가 되어 후배들을 이끌고 있다. 올해 6학년인 영민 군은 앞으로 의령중학교, 신반정보고등학교에 진학해 탁구인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형의 목표를 든든 동생은 수줍어하면서도 또렷하게 목표를 밝힌다.

첫째 마영민 “올림픽 나가서 메달도 많이 따고, 제가 어른이 됐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영민’ 하면 누군지 딱 알게 하고 싶어요.”

둘째 마영준 “저도요. 저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고 싶어요!”

작은 공, 큰 행복. 탁구가 빚어내는 가족의 행복이 탁구대 위에서 빛난다.

토박이말바라기와 함께하는 토박이말 나들이

배움책(교과서)에서 캐낸 토박이말
서른아홉 번째

하나치, 알다

1학년 국어 배움책(교과서) 여덟째 배움 마당은 ‘소리 내어 또박 또박 읽어요’입니다. ‘문장 부호를 생각하며 글을 띄어 읽기’가 버림소(주제)이고 210쪽부터 215쪽에 걸쳐 ‘문장 부호 알기’라는 알맹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212쪽 여덟째 줄에 나오는 ‘단위’라는 말과 아랑곳한 이야기부터 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줄과 여덟째 줄에 걸쳐 있는 “문장은 말이나 글로 생각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해요.”라는 월(문장)이 있습니다. ‘단위’는 한자말로 ‘홀 단(單)’과 ‘자리 위(位)’를 쓰는데 한자 풀이를 하자면 ‘홀자리’가 되어 그 뜻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

단위(單位)

- 길이, 무게, 수효, 시간 따위의 수량을 수치로 나타낼 때 기초가 되는 일정한 기준.
근, 되, 자, 그램, 리터, 미터, 초 따위가 있다.
- ≡ 하나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단위’를 찾으면 “길이, 무게, 수효, 시간 따위의 수량을 수치로 나타낼 때 기초가 되는 일정한 기준. 근, 되, 자, 그램, 리터, 미터, 초 따위가 있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고 비슷한 말로 ‘하나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치’의 뜻풀이도 찾아보면 ‘단위’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처럼 ‘하나치’라는 토박이말이 있는데 굳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보는 배움책(교과서)에 ‘단위(單位)’라는 한자말을 써야 할 까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치’라는 토박이말을 살려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아래에 바로 ‘문장부호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	?	!
쉼표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보시는 바와 같이 ‘쉼표’는 ‘쉼+표(標)’, ‘마침표’는 ‘마침+표(標)’, ‘물음표’는 ‘물음+표(標)’, ‘느낌표’는 ‘느낌+표(標)’의 짜임으로 뒤에 있는 ‘표(標)’만 한자고 앞은 모두

토박이말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쉼표’는 다른 말로 ‘휴부(休符)’라고도 하며 ‘마침표’는 ‘종지부(終止符)’라고도 합니다. ‘물음표’는 ‘의문부(疑問符)’라 하고 ‘느낌표’는 ‘감탄부(感歎符)’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말을 1학년 배움책(교과서)에서 쓰지 않는 까닭이 뭘까요?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처럼 될 수 있는 대로 토박이말이 있으면 살려 쓰고 어려운 한자말은 쉬운 토박이말을 넣어 바꿔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13쪽 오른쪽 아래에 “문장 부호는 문장의 뜻을 이해하기 쉽게 해 줘요.”라는 월이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이해하다’는 말도 1학년 아이들에게는 좀 어려운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다’는 한자말 ‘이해(理解)’에 ‘하다’를 더한 말로 ‘다스릴 리(理)’에 ‘풀 해(解)’를 한자말 뜻으로 풀면 ‘다스림 풀이(?)’가 되어 뜻을 알아차리기 어렵게 됩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이해하다’를 찾으면 ‘깨달아 알다. 또는 잘 알아서 받아들이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풀이를 한마디로 줄이면 ‘알다’가 되고 비슷한 말로 ‘알다’라는 말을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보더라도 1학년 배움책에 굳이 ‘이해하다’는 말을 쓰기보다 쉬운 ‘알다’는 말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선 글에서 ‘문장’을 ‘월’로, ‘문장 부호’를 ‘월점’ 또는 ‘글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으니 바꾸고 ‘이해하다’ 자리에 ‘알다’를 넣으면 다음과 같은 월이 됩니다.

“월점은 월의 뜻을 알기 쉽게 해 줘요.”

이게 너무했다 싶으면 ‘문장과 문장부호’를 바꾸지 않고 ‘이해하기’를 ‘알기’로 바꿔도 “문장부호는 문장의 뜻을 알기 쉽게 해 줘요.”로 되어 훨씬 쉽게 느껴집니다. 아이들의 자리에서 더 알기 쉬운 말을 찾아 배움책에 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과 슬기를 모았으면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웹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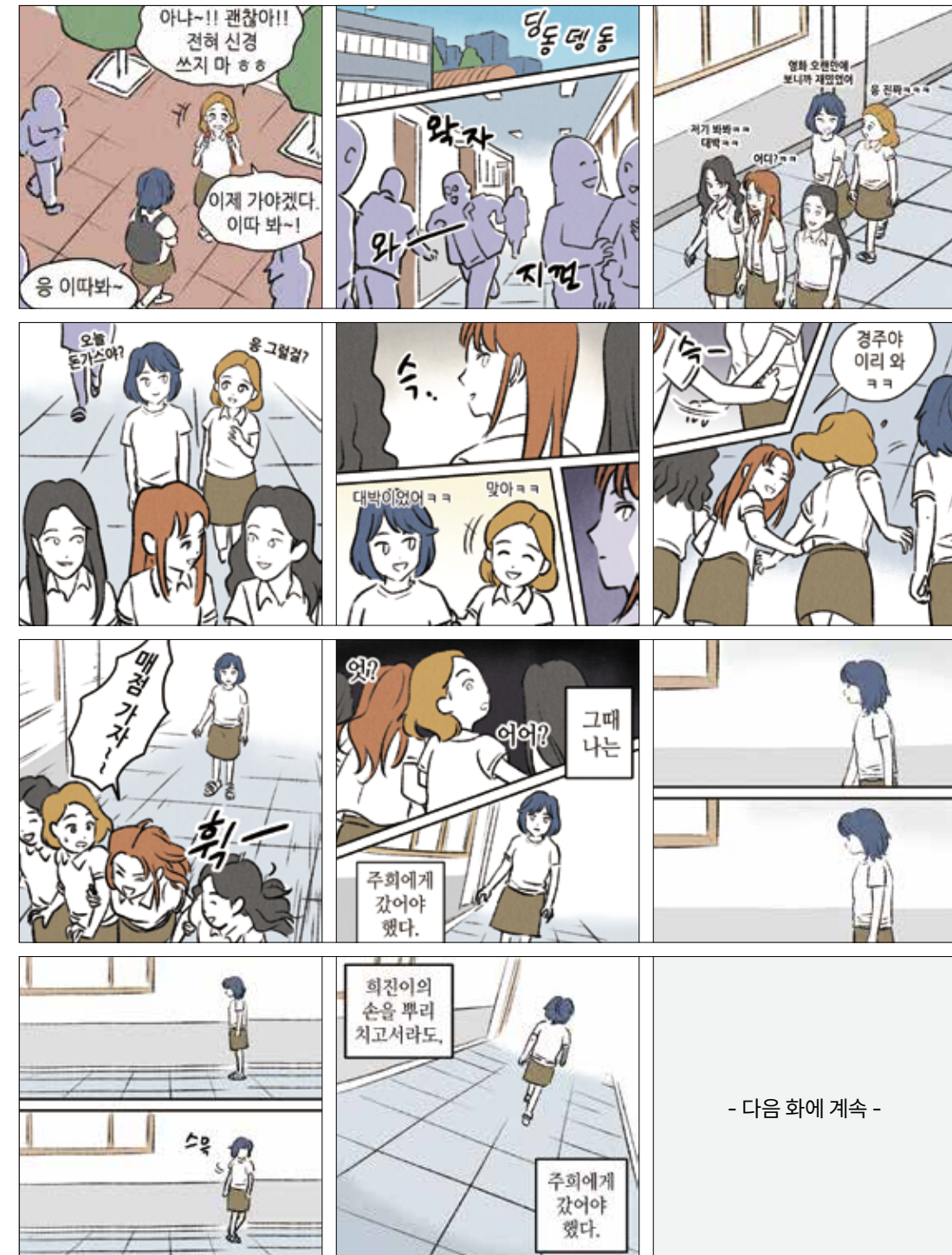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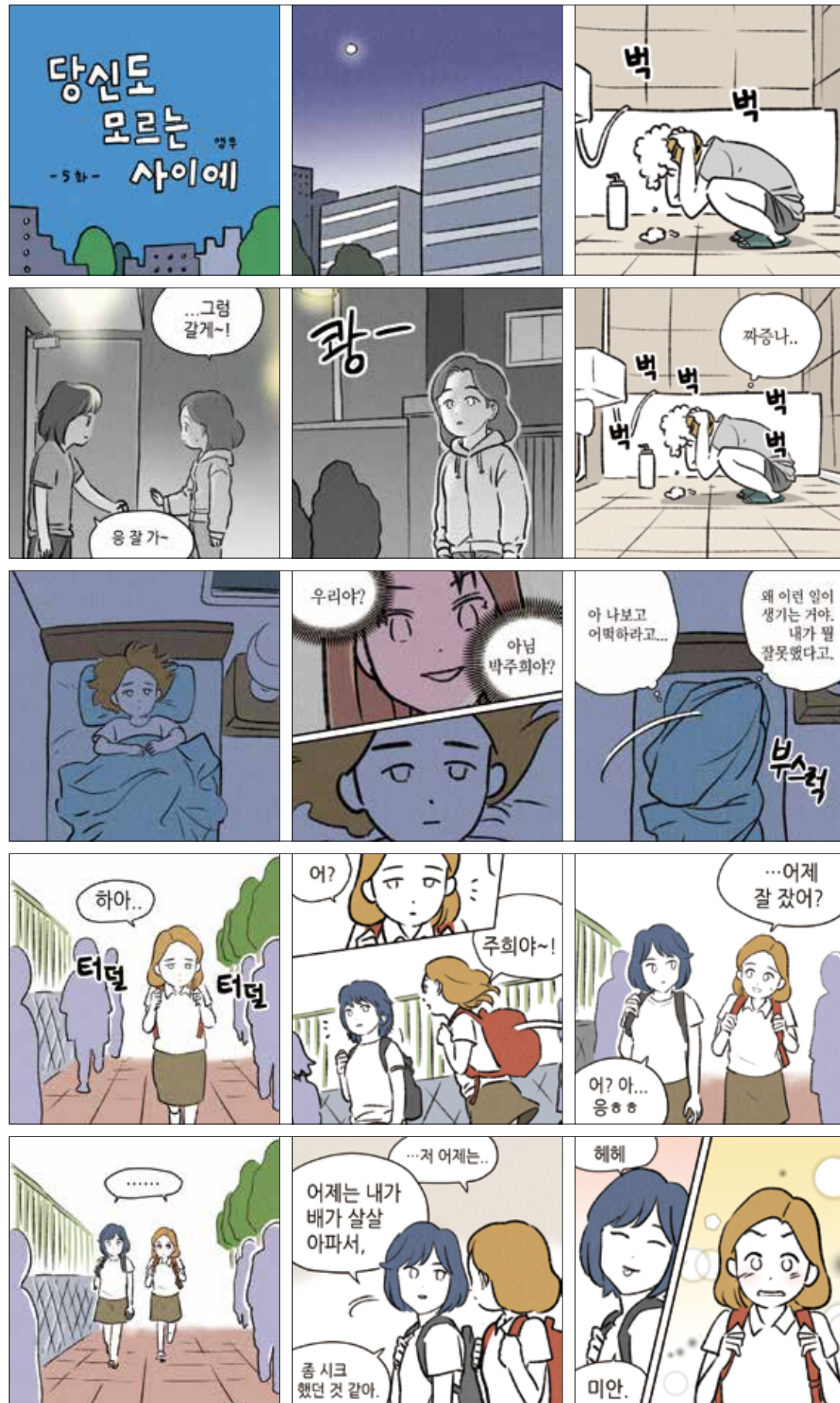
당
신
도

모
르
는

사
이
에

5화

웹툰작가 **앵무**





현재 고2 학생들을 위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알려드립니다



어느새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수능이 반년도 남지 않은 고3 학생들은 긴장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텐데요. 얼마 전 전국의 일반 대학교는 각 대학 누리집을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 해당하는 고2 학생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 진학을 위해선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2024학년도 대입전형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대학 별로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서 꼭 알아야 하는 몇 가지를 요약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2025학년도 대입전형 계획 발표

큰 특징으로는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정시모집 수능위주 선발기조 유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학교폭력조치사항 자율 반영, 수능 응시과목 관계없이 문·이과 통합 선발 대학 증가로 요약 됩니다. 우선 2024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3 학년보다 3,362명 감소한 240,934명을 모집하며 2024학년도 보다 수시 모집비율은 0.6% 증가한 79.6%이고 정 시모집은 0.6% 감소한 20.4%입니다. 비수도권 대학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 정시모집 비율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필수반영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5학년도 대학자율실시, 2026학년도 학생부위주·논술·실기·수능전형에서 학 교폭력 조치사항 필수반영에 따라 우리지역 경남대, 경상국립대, 진주교대를 포함한 112개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 에 반영하며,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대비 17개교에서 수능 미적분·기하(수학 영역), 과학탐구(탐구 영 역) 필수 반영을 폐지합니다.

수도권 주요대학 대입전형계획 특징

서울대학교는 전년도에 비해 변경내용이 없으며 연세대학교는 학생부교과전형(추천형)에서 면접 폐지 및 대학수학 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신설하며,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국제형/기회균형) 및 특기자 전형 서류평가 시 정 성평가로 학교폭력조치사항을 반영합니다. 고려대학교는 논술전형을 논술100%로 신설하여 344명을 선발하고, 수 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합니다. 2024학년도에 비해 학교장 추천전형 51명, 학업우수전형 179명, 계열적합전형 120 명이 감소되었으며, 학업우수전형은 면접을 폐지하고 서류100%로 선발합니다. 특히 한양대학교는 기존의 학생부위 주전형 2개를 폐지하고 4개를 신설하였으며, 학생부교과(추천형), 학생부종합(추천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 용합니다.

지역 주요대학 대입전형계획 특징

경남대학교는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의 명칭을 변경했고 수시·정시에서 군사학과의 수능최저학력기준 을 변경 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수시모집인원 110명 감소, 정시모집인원은 103명이 증가했습니다. 수시모집에 서 학생부교과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고, 정시모집 가산점 조정 및 일부학과 모집군 이동도 있습니다. 창 원대학교는 일부 모집단위 명칭 등 일부 변화가 있지만 2024학년도에 비해 전형방법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원 대학 전형에 맞춰 대비하는것이 중요

전반적으로 2024학년도에 비해 큰 변화는 없으나 학생 선호도가 높은 대학을 중심으로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입에서 학생부교과성적의 변별력 확보가 어려울 질 것이라는 예상으로 정성 적평가 보다 정량적평가 중심으로 전형을 변경하는 경향이 었 보입니다. 학생부위주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보다 는 학생부교과전형 선발인원 증가,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 전형 확대 추세로 전형을 일부 변경한 대학이 다소 있습 니다. 따라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상위권 중심으로 학교수업활동에 충실해야 할 것이며, 교과성적 관리와 학 교 내 교과 역량 향상을 위한 활동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 니다.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계획을 잘 살펴보고 궁금한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 선생 님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숫자로 보는 경남교육



경남 의령고등학교가 확 달라졌습니다. 교사동이 전면 개축되었고 모든 교실에 전자칠판이 설치되었습니다. 전국 첫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을 벌인 것입니다. 의령고등학교는 2019년 교육부 공개 모집 사업에서 전면 개축하는 전국 1호로 선정된 학교라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공간 혁신을 통해 교사들이 편안하고 다양한 수업을 펼칠 수 있는 공간, 아이들에게는 멋진 꿈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경상남도교육청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1

1952년 문을 연 의령고등학교



경남 의령고가 최첨단 학교로 탈바꿈하고 지난 3월 30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1952년 문을 연 의령고는 의령농업고등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은 후 1973년 의령종합고등학교, 1999년 의령고등학교로 각각 교명을 변경했고, 2008년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2011년 일반계고로 전환됐습니다. 오랜 기간 노후화된 시설로 개축이 필요했고, 경상남도교육청은 3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에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 학교 단위 공간혁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학교공간혁신사업 전국 1호로 선정된 이후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 학점제 시행 등 미래 교육에 대응하고, 다양한 교수 학습과 학생 간 교류와 쉼에 유연한 공간, 지역 교육 거점 미래학교로 전환합니다. 의령고등학교가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의 중심이 되어 경남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선도 모델로 타 시도의 교육공간 혁신을 위한 우수 사례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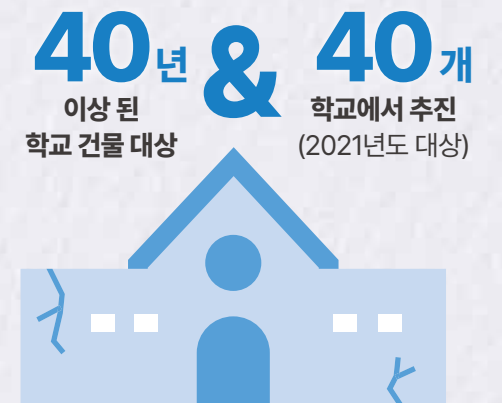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 총사업비 147억여 원 투입



총사업비 147억여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총면적 4873m²규모로 2021년 12월 20일 착공하여 올해 2월 7일 준공됐습니다. 최종 준공 검사와 준비 기간을 거쳐 3월 2일부터 개축 건물에서 새 학기를 운영 중입니다. 개축 건물은 기존 학교의 단편적 공간 구성을 탈피한 개방형 천장 형태 건축기법을 적용하여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편안한 공간의 여유를 강조했습니다. 2~3층은 교실 앞 발코니 형태의 공동학습덱(deck)을 만들어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교실 벽을 가변형으로 하여 유연한 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크기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전 교실에 전자칠판을 설치하고 무선통신을 가능하게 했으며 태양광발전장치와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하여 그린스마트 환경을 마련하고 내진설계를 통한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열린도서관과 창작활동실은 학습과 휴식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준공 기념으로 (사)한국미술협회 의령지부 주관으로 3월 30일부터 4월 9일까지 미술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학교는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공간을 활용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3

경남교육청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경남교육청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양한 교수학습을 적용할 수 있는 공간, 학생의 삶을 지원하는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둡니다. 적절한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새 단장(리모델링)해 제공합니다. 2021년도 기준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돼 2024년에 완공될 예정이고, 추가 대상 학교도 앞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9~12개월) 학교 여건에 따라 모듈러 방식의 임시 학교 건물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전의 교원과 학생 사이의 억압적이고 소극적인 공간으로서의 학교가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혁신적으로 수평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특히 지역 소멸 위기 상황에서 학교가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공간으로 제공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전국 1호 준공을 발판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역시 경남교육청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을 철저히 점검·지원해 지속 가능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남교육 NEWS



진해 신항고 김해 내덕도시초 설립 확정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모두 통과 원거리 통학 등 해소 도움

진해 신항고와 김해 내덕도시초가 신설된다. 신항고는 37학급(특수 1학급 포함), 총 996명 규모다. 오는 2027년 3월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37-2번지 일원에 개교 목표로, 고교학점제와 공간혁신을 적용한 미래형 학교로 건립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신항고 신설 계획이 통과되면서 진해 동부권역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해소와 과밀학급 해소에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습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진해 중부권역 내 고등학교 부족 현상도 심화됨에 따라 경남교육청과 창원시는 최근 중부권 일원에 학교부지를 선정하고, 학교 설립을 위해 계속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김해 내덕도시초등학교도 이번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2025년 9월 문을 열 예정으로, 김해시 내덕동 7-8번지 일원에 43학급(특수1학급 포함), 학생 수 1172명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이번 내덕도시초의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내덕지구와 인근 골든루트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4635세대의 학생을 적기에 신설 학교로 배치할 수 있게 됐다.



중학생 봉사활동 15시간으로

봉사활동 만점 5시간 늘어 다자녀 우선배정 등 혜택 강화

‘2024학년도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설명회’가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진행됐다.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내신성적 봉사활동 시수가 늘고, 평준화지역 일반고 다자녀 우선 배정 등 혜택은 강화한다. 고교 입학전형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가장 크게 변화한 점은 △내신성적봉사활동 시수 증가(3년간 10시간에서 15시간으로)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졸업예정자 가운데 가정폭력 피해 학생의 도내 고교 지원 자격 추가 △평준화지역 일반고 다자녀 우선 배정 실질적 혜택 강화 △중증질환자 학교 선택권 확대 등이다.

올해 고교 입학전형 일정은 7월 17일 특수목적고를 시작으로, 특성화고는 11월 23일~12월 5일, 외국어고와 일반고는 12월 18~20일이다. 평준화지역합격자는 내년 1월 5일, 합격자 학교 배정은 1월 12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가 고교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난해 구축한 경상남도교육청 고입 포털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경남교육 NEWS



경상남도서 ‘어린이 자전거 면허시험’ 전국 첫 시행

실습 위주 교육 후 면허 시험 어린이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전국 자치경찰 위원회 중 처음으로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 면허시험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어린이의 안전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의식 함양을 위한 이 사업은 도내 초등학교 10곳 4~6학년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난 3월 통영초등학교에 시행된 면허시험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학기 중에 해당 학교로 자전거 전문 강사들이 찾아가 면허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면허시험은 △보호구 착용의 필요성 △수신호 방법 △횡단보도 건너는 법 등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내용 숙달을 위한 실기시험 순서로 이뤄진다.

시험에 합격한 어린이에게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 면허증을 발급하는 한편 참가한 모든 어린이에게 헬멧을 제공해 안전용품 착용 생활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현태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 면허시험은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감소하나, 어린이 자전거 사상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경남 실정에 맞춘 자치경찰 시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상남도교육청,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

경남 유아교육 유보통합 첫걸음... 9월부터 2024년까지 운영

경남교육청이 교육부가 시행하는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 ‘유보통합으로 새롭게, 유보상생으로 이롭게’라는 표어 아래 교사 연수·누리과정 컨설팅을 운영하여 교원의 유아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경남교육청은 먼저 경남도와 협업으로 도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원을 대상으로 유아·놀이 중심의 연수와 컨설팅을 지원한다. 유아교육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고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경남교육청의 주요 사업인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과 지역의 유아교육 정보 제공을 지원하는 ‘거점유치원’을 운영하고 ‘교육과정 운영 실천 사례 발표’와 ‘수업 나눔 한마당’ 등을 통해 교실 수업 연구 활동을 공유하여 교실 수업을 개선한다.

*유보통합 정책 :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는 정책



교육위원에게 듣는다

노치환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비례대표 • 국민의 힘)

의원님, 안녕하세요. 먼저 아이좋아 경남교육 소식지 독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이좋아 경남교육 소식지 독자 여러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노치환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남교육 가족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으로서 어느 때보다 경남 교육에 많은 관심을 쏟고 계실 텐데요. 현재 경남교육 정책 중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정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미래교육 플랫폼 ‘아이톡톡’을 살피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진행한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은 아이톡톡의 활

용률을 높여 학생 개개인의 학습을 뒷받침하고자 이뤄진 사업입니다. 당초의 취지대로 아이톡톡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관심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최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로 돌아오게 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제403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피력한 제 견해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교육당국의 가시권 밖에 놓이게 되면서 아동학대 등 각종 위험요소에 노출된다는 점에 우려가 큼니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도내 대안교육 기관의 역할이 단순히 학교 부적응 학생을 보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 위탁보다는 공립 대안학교의 확충과 함께 2000명에 달하는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로 돌아오게 하는 지역사회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구인 창원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과제는 무엇인가요?
이와 관련해 새롭게 필요하거나 보완해야 할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창원의 주거 환경과 학교정책의 조화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창원특례시 내에서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지역은 초거대 과밀학급 문제로 학교 신설 요구가 높지요.

그러나 기존 학교의 학급이 여유가 있어 매년 신설 계획이 무산되면서 학부모 민원 발생이 잦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안 도출이 창원의 중요 과제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깊은 고민과 더불어 정책적 해결 실마리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소식

경상남도의회, 제404회 임시회 개최

5분 자유발언 실시, 조례안 심사 등



경상남도의회 제404회 임시회가 5월 16일(화)부터 25일(목)까지 10일간 개최하였다. 장진영 의원 등 16명 의원의 도정질문이 있었고, 전체 안건은 경상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경상남도의회 제40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404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교육위원회를 17일 개최하였다. 의안 심사 전 2022년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건 등 3건의 보고를 받고 이어 경상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다. 또한,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으며,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대의견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다.

응급환자 골든타임 책임진다 ‘경상남도 응급의료지원단’

경남도가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응급의료지원단을 운영한다.
민선 8기 경남도정의 주요 공약사항이기도 한 ‘경상남도 응급의료지원단’에 대해 알아봤다.

가상 이야기

경남에 살고 있는 67세 이경남 씨. 가족들과 함께 저녁식사 후, 뉴스를 보고 있던 경남 씨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가족의 신고로 119구급대가 발빠르게 도착했으나, 경남 씨의 응급진료는 좀처럼 진행되지 못했다. 가는 병원마다 빈 병상이 없거나 의사가 없어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다급해진 119구급대는 타 지역 병원 응급실에 연락을 취했다. 결국 경남 씨가 살고 있는 곳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해 그곳으로 향했다.



응급의료지원단, 왜 필요할까?

이처럼 119구급차를 타고도 응급실을 찾지 못해 거리를 표류하는 것을 ‘응급실 뺑뺑이’라고 한다. 분 초를 다투는 응급환자들이 치료 골든타임을 속절없이 흘려보내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는 것이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이송하고 적기 치료를 위한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는 등 경남도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지원단’을 운영해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양산 부산대병원 중심 단계별 진행... 현황 분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난해부터 현행 체계를 정비하고 종합컨트롤타워 구축을 준비해 왔던 경남도는 지난 4월 응급의료지원단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맡는다. 민문기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을 단장으로 3팀(지역사회 협력연계팀, 현장관리 지원팀, 정책홍보팀) 총 9명으로 운영된다. 응급의료지원단은 먼저 경남의 응급의료 자원을 조사해 응급환자 의료기관의 불수용 사례 등 현황을 분석해 수치화하고, 중증도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별 역할 강화와 권역별 전담관리체계로 수용거부나 부적절 이송에 대한 원인 파악과 현장에서 지도하고 예방대책으로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것이다.



더불어 ▲119 및 의료기관 등 유기적 연계 협업 체계 마련 ▲도민중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의 응급의료 현황

경남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곳, 지역응급의료센터 6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7곳으로 총 36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있다. 인구 100만 명당 기관수 11.2개소로 전국 7.8개소보다는 다소 높으나, 응급의학 전문의가 총 71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전문의 수는 21명으로 전국 4.5명보다는 낮은 수준이다.(21년 12월 기준) 또 고령인구 증가와 편중된 응급의료 자원 등도 응급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응급환자 이송률, 현재 89% → 2026년 92% 향상 계획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지원단은 도내 응급의료기관이 보유한 인력과 병상을 실시간 현행화한다. 응급의료기관을 지도 관리하고 인센티브 지원, 응급실 순환 당직 확대 등으로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이송률을 향상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89%인 이송률은 2026년 92%로 개선할 계획이다.

더불어 119 구급차가 무작정 큰 병원 응급실로만 달려가지 않고 증상별로 중증도 분류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고질적인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민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아이좋아> 5월호 예고편 영상 댓글 이벤트

요즘 당신을 기쁘게 하는 취미생활은 무엇인가요?



카페 커피 따라 만들어보기 권하나 님

코로나 기간 동안 잘 하지 못하고 있다가 거의 4년 만에 다시 배드민턴을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시작하니 체력이 안 따라와줘서 힘들지만, 오랜만에 땀 흘리면서 같이 운동하는 분들과 다시 친해지니 너무 좋더라고요! 운동이 주는 에너지로 재미있게 즐기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한 배드민턴 이정훈 님

전 요즘 취미 생활로 집에서 카페에서 파는 커피를 똑같이 따라해보는 게 취미예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 그 시간 동안 집에서 뭘 해볼까 고민해보니 제가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일을 좋아한다는 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카페에서 먹던 커피를 따라 만들어보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저의 취미가 되어버렸어요. 비슷하게 노력해서 만들어 보긴 하는데 카페 만큼의 맛은 역시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본다는 게 귀찮지 않고 너무 즐거워요. 이게 찐 취미 맞죠?

밭에서 작물 키우기 권민석 님

요즘 저의 취미는 '밭에서 작물 키우기'입니다. 상추, 파, 양파, 부추, 쪽파 등 다양한 작물을 키우고 있는데 농약도 하나도 안치고 키워서 우리 가족이 먹을 때도 걱정이 없어요.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즐겁고 뿌듯해서 그런 기분에 더 열심히 키우는 것 같아요~



아침에 하는 동네 산책 김기현 님

요즘 저의 취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집에서 나와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는 것입니다. 2023년 새해 목표가 '짧은 시간이라도 아침 산책을 꼭 하자!'였거든요. 5월인 지금까지 꼭 지켜오고 있는데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아침 산책을 나간답니다. 아침 산책을 하는 도중에도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면 건강해지는 기분에 즐겁기도 하지만, 가장 즐거운 순간은 바로 아침 산책이 끝나고 집에 들어와 샤워 후에 뿌듯함을 느끼며 '오늘 하루도 보람차게 시작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아침밥을 먹는 그때! 그 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예쁜 꽃들을 보며 하는 산책 김경숙 님

사는데 바빠서 취미라고 말 할 만한 게 잘 없네요. 그저 즐거운 순간이 있다면 따뜻한 날 예쁜 꽃들과 자연과 함께하는 산책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이게 취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처럼 예쁜 꽃들이 피는 계절이면 제 마음도 설레고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아이좋아 경남교육 소식지
5월호 예고편 영상 바로가기

본 이벤트는 <아이좋아> 소식지 5월호 예고편 영상 시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댓글 이벤트입니다. 매달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치킨 기프티콘을 증정합니다. 6월호 이벤트는 5월 말 경남교육청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에 공개되는 예고편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6월호

독자퀴즈

아이좋아 경남교육 6월호를 집중해서 읽은 독자들만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잘 읽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 2022년, 진주여중 축구팀이 2021년에 이어 우승을 거둔 대회 이름은 무엇일까요?(객관식)
① 춘계한국여자축구연맹전 ② 러시아월드컵
③ 전국소년체전 ④ 추계한국여자축구연맹전
-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교육부가 설립하고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멀티상담센터(Multi-Counseling Center)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객관식)
① 위(Wee)센터 ② 왕(Wing)센터 ③ 위아(We are)센터
④ 윈(Win)센터
-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코딩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코딩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경상남도교육청만의 특별한 코딩교육 프로그램 이름은 무엇일까요?(주관식)
- <열정을 만나는 시간> 코너에 소개된 김정웅 어르신처럼 나라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을 뜻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주관식)

5월 독자퀴즈 정답과 당첨자

- 정답 1. ② 바모스 / 2. ② 돌봄 / 3. 어린이해방선언 / 4. 문해교육 프로그램
- 당첨자 양산 삼랑초 장윤서 / 창원 상일초 박예원 / 사천 삼성초 김부민

독자퀴즈 정답 보내실 곳

- 매월 제시되는 독자퀴즈의 정답과 이름, 연락처, 주소, 소속(교직원 및 학생인 경우)을 기재해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께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제출 기한 2023년 6월 20일까지
 - 보내실 곳 경남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전자우편(gne8@hanmail.net)
 - 문의 055-278-1784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아이좋아 경남교육'을 읽고 느낀 점이나 좋았던 점 또는 소개하고 싶은 여러분의 이야기(자유 형식)를 아래로 보내주세요.

- 제출 기한 2023년 6월 20일까지
- 보내실 곳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 전자우편 gne8@hanmail.net
- 전화번호 055-278-1784



경남교육 SNS

경남교육 정책과 주요 행사를 실시간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좋아
경남교육 웹진

학생 댄스 영상 공모전

2023 댄스타 페스타

대상

경남 초·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공모기간

2023. 06. 01. (목) ~ 10. 31. (화)

상금 및 시상

300,000원

(우수상 2명 또는 팀 / 인기상 1명 또는 팀)

